

#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왜 친미반북이 되었을까?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박근혜 퇴진운동이 한참이던 2017년 김정남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누군가에게 암살당했다. 국내 언론에서는 김정남 정권이 그를 암살했다고 보도를 했고, 김정남 암살을 토대로 국내의 우익 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비난의 포문을 열기 바빴다. 사실 나는 이 사건의 진상이 뭔지는 크게 관심이 없다. 다만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의 존재가 흥미로울 따름이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물론 그 소식을 들었던 당시의 나는 많이 안타까워 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전인 2019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었다. 대사관에 있던 북한 직원들은 괴한들에게 포박당했으며, 괴한들은 대사관에 걸린 김일성·김정일의 액자 사진을 의도적으로 부수는 행동을 촬영했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탈취해갔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자료들은 미국 FBI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테러를 실행한 단체는 바로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였다. 2017년 김정남 암살 이후 그의 아들 김한솔은 동영상 하나를 올렸다. 그 동영상에는 앞에서 언급한 자유조선의 마크가 다왔다. 따라서 김한솔 또한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북한 출신 김한솔입니다

아버지가 며칠 전에 살해됐습니다

2021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김한솔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그 목격담에 따르면, 워싱턴에 있는 쉼썬버거 레스토랑에서 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미국 경호원 4명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CIA 본부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보았을 때, 김한솔은 분명 자유조선에서 활동하며 미국의 CIA와 NED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한솔이라는 인물은 왜 이러한 반북투사가 된 것일까?



나는 그러한 이유를 가족 문제와 해외생활에 있다고 본다. 우선 가족 문제를 보자면,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은 아버지 김정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단 남측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보자면 그런 것이다. 2000년대 김정남은 위조여권을 가지고 일본 도쿄에 있는 디즈니 랜드에 가려던 것이 들킨 적이 있다. 그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북한 당국을 다소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다. 김정남은 성인이 되어 외국에서 주로 머물며 살았기에, 북한에 대해 다소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걸로 추정된다. 김정남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한 것은 아마 그러한 삶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현재의 김정은 위원장 또한 해외생활을 했다. 그러나 자신의 형인 김정남이나 김정철과는 달리, 2000년대에 북한에서 머물렀고, 그 과정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은은 김정남이나 김정철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김정남에 대해 계속 말해보자면, 아들인 김한솔에게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을 리 만무하다. 거기다 아들은 줄곧 해외생활을 하며 국제학교를 다녔기에, 환경적으로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리 만무했을 것이다.





당연히 김한솔은 국제학교를 다니며,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 생겼을 것이다. 또한, 북한 정부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는 존재였기에 북한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미국의 추악한 이면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2012년 BBC가 그를 인터뷰 했을때, 그가 리비아 폭동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점을 입증하는 방증일 것이다. 학교를 다니며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걸 밝히는 것도 많이 꺼려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나쁘게 인식하는 관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김한솔이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된 계기에는 바로 그의 삶이 그런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본다. 앞에서 나는 자유조선의 테러행위를 언급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걸 언급했다. 자유조선을 미국이 지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과 북한관계에서 필요에 따라 그 체제를 전복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냉전시기부터 이러한 색깔혁명을 조장하는데, 많은 경험이 있고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2019년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즉, 자유조선도 미국의 색깔혁명을 위한 전위대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이러한 제국주의적

색깔혁명의 주요 인사로 있는 점은 분명 눈여겨 볼만 하다.